

1970년대 대중잡지 《선데이서울》 표지를 통해 본 여성 표상

Women's Representation from the cover of 《Sunday Seoul》 in the 1970s

손채영·조혜영

Sohn Mirabel Chaeyoung, Cho Haeyoung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건국대학교 교수 Professor, Konkuk University

- | | |
|---|-------------------------------|
| 1. 서론 | p-ISSN. 2765-2572 |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e-ISSN. 2765-7825 |
| 1.2. 연구 방법과 범위 | 투고일 2023년 7월 8일 |
| 2. 1970년대 대중잡지의 사회문화적 의미 | 심사일 2023년 7월 11-25일 |
| 2.1. 매체로서 대중잡지의 특성과 표지 |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일 |
| 2.2. 1970년대 《선데이서울》의 대중서사 역할 | Received Date 8 July 2023 |
| 3. 1970년대 《선데이서울》 표지에 나타난 여성의 유형별
표상 분류 및 분석 | Reviewed Date 11-25 July 2023 |
| 3.1. 직장 여성 | Accepted Date 1 August 2023 |
| 3.2. 여대생 | |
| 3.3. 연예인 | |
| 4. 결론 | |

요약

이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대중잡지 《선데이서울》의 표지를 통해 여성이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시각 자료를 통하여 고찰했다. 표지는 총 3가지 직장 여성, 여대생, 연예인으로 분류하여 표지 모델 인터뷰 내용과 함께 분석을 했다. 이를 통해, 《선데이서울》 표지 이미지가 사람들이 원했던 여성상을 표상할 수 있는 아이콘이었고, 잡지표지에 구현된 이미지는 대중의 호감을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자 ‘대중서사물’이었다. 다시 말해, 대중의 욕망과 소통의 창구로서 작동하면서 시대의 욕망을 대중서사로 시각화하며 건전하게 서로 호감을 얻고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이는 1970년대라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선데이서울》 표지에 나타난 여성표상으로서 대중이 흥미를 갖는 문화적 함의를 알 수 있었다.

주제어

1970년대 대중문화, 대중잡지, 대중서사, 선데이서울, 여성표상, 표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how women were represented through the cover of the South Korean popular magazine 《Sunday Seoul》 in the 1970s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by type. The research method was consider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visual data. The cover was classified into a total of three working women,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elebrities, and analyzed with the contents of the cover model interview.

Through this, the 《Sunday Seoul》 cover image was an icon that could represent the ideal desired by people, and the image embodied on the magazine cover was one of the strong indicators and public books that could win public favor. On the other hand, the cover image also served as a window for public desire and communication. The desires of these times were visualized as popular narratives and were a place where they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directly and obtain a good impression of each other. This study show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popular culture in the 1970s and the meaning of the public's interest as a representation of women on the cover of 《Sunday Seoul》.

Keywords

Popular Culture in the 1970s, Popular Magazine, Popular Narrative, Sunday Seoul, Representation of Women, Cover Image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범용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정보와 데이터는 양방향 상호소통적이며 물질과 비물질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감각으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으로 분화된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 오늘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같은 맥락인 ‘대중잡지’가 있다.

‘대중잡지’는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며 문화의 전달 및 보호, 창조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중적 소통방식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중잡지는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인류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¹⁾ 이에 이 연구는 1968년부터 발간되었던 한국의 대중잡지 《선데이서울》 표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잡지에서 드러나는 시대의 문화적 표상을 분석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대의 대중잡지는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통속적이고 세속적 내용에 치중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거나 해석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적 담론과 문화적 서사가 드러나는 매체로서 잡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잡지 표지 연구는 일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1차적 사료가 되어 한국의 대중문화와 잡지 매체를 독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향유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시각 자료를 통한 1960-70년대 우리나라 생활문화사와

대중매체와 관련된 단행본과 《선데이서울》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선데이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mass media)인 주간지의 전파가 1970년대에 주류 문화를 이루면서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수용됨에 따라 이른바 ‘문화폭발’(cultural explosion)이라는 현상이 촉발²⁾되었던 시기의 대표 잡지이기 때문이다.

잡지의 내용 분석은 《선데이서울》 잡지 실물 원본 소장용 총 5권을 기초로 했다.

《선데이서울》의 목차를 통해 《선데이서울》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 표지모델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선데이서울》이 담고 있는 표지모델 여성의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했다. 《선데이서울》 표지 이미지 자료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디지털아카이브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e뮤지엄’(전국박물관 소장품 검색사이트) 및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와 국립민속박물관에 게시된 디지털 자료를 취합해 연구에 활용했다.

한편, 이 연구의 범위는 《선데이서울》의 창간 해인 1968년부터 1970년대까지 사회문화적 변화와 매스컴 문화로서 대중매체가 크게 성장하게 된 시기로 한정했다. 잡지 표지 이미지는 e뮤지엄(1969.4.13.통권29호, 1970.9.3.통권 204호, 1971.8.29.제151호, 1973.10.14.제261호, 1973.12.16.통권 제270호, 1974.1.27.제275호, 1975.1.5., 1976.4.4.제387호, 1976.10.31.제417호, 1977.2.6.제430호, 1979.9.9.제12권 제36호-통권563호), 과천 국립현대미술관(1970.1.4.제66호, 1970.1.11.통권 제67호, 1970.1.18.통권 제68호, 1970.3.1.통권 제74호,

1970.1.18.통권 제68호), 국립민속박물관(1969.8.31.통권49호, 1977.6.12.제448호) 자료를 취합했다. 《선데이서울》 잡지 원본 소장용은 1969년 5월 11일 통권 33호, 1969년 5월 18일 통권 34호, 1969년 12월 14일 통권 64호, 1970년 5월 17일 통권 85호, 1975년 3월 23일 통권 334호로 총 5권을 기반으로 참고 했다. 분류 기준은 표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나이, 직업, 학교, 성격 등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지들로만 정리했다. 즉,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표지 이미지만 있고 내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은 제외했다. 잡지 표지 인물에 관한 내용은 잡지 내지 안에서 ‘5분 데이트 코너’로 인터뷰 글이 실렸거나, 목차에 작게 표지 인물 프로필이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정보들로 분류하여 핵심 단어들을 구성했다. 《선데이서울》은 4×6판형에 약 80쪽 분량과 약 35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창간호(20원)를 시작으로 매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잡지 표지 어떤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으며, 잡지 매체가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2. 1970년대 대중잡지의 사회문화적 의미

2.1. 매체로서 대중잡지의 특성과 표지

현대 사회는 정보의 효과적, 효율적 전달을 매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들의 형성을 이끌어 왔다. 다양하게 형성된 매체들 중에서 대중 활자매체는 19세기 중반에 혁신적으로 창출된 여러 기술적 진보의 영향 속에 더욱 발전을 거듭했는데, 이러한 대중 활자매체의 발전은 이후 잡지가 대중화되어 사람들의 일상 영역에서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대중잡지는 특정한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취미나 가벼운 호기심 등에 관한

독자들의 다양한 관심에 충실히 충족시켜 왔다. 이에 대중잡지는 역사성이 짙은 인쇄 매체로서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매개체이자 독립적 고유 영역을 공고히 확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중잡지는 고유의 특성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데, 이들 특성은 크게 외적 특성 및 내적 특성으로 대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그 외적 특성은 정기성, 내용적 다양성, 제책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정기성이란 일정하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제명 하에 발행이 되는 특성을 뜻한다. 또한 내용적 다양성은 잡다하게 편성된 여러 읽을거리들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뜻한다. 마지막 제책성은 책과 같이 껍데기 놓아 책의 형태를 띤다는 특성을 뜻한다. 반면, 내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대중잡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잡지는 그 기능상 신문 또는 방송과 비교할 때 장기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 영향력을 띠고 있으며, 오락적 차원에서도 같은 인쇄 매체인 신문보다는 더욱 다양한 기사를 제공해 풍부한 글을 담고 있다는 특성 또한 보인다.³⁾

현재 잡지는 디지털화된 매체의 변화로 그 위력이 저하되었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잡지를 통해 지식과 교양의 획득이 이루어지면서 대중의 일상을 연결하는 장이었다. 한국에서는 TV가 1970년대가 되어서 대중적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출판문화는 양적 급성장과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찾는 많은 독자층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1) 〈잡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강현두, 『韓國의 大衆文化』, (나남, 1987), pp.22-23

3) 〈대중문화〉, 〈잡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기 인쇄물 간행지로서 《서울신문사》에서 1968년부터 발간한 《선데이서울》은 1980년대까지 꾸준히 300호 이상을 발행하여 주간 오락잡지로서의 명맥을 이어 나갔던 대표적 대중잡지로 평가될 수 있다. 《선데이서울》은 월간지나 계간지가 담보한 고담준론과 다르게 한 번 읽고 버려도 무방한 기사, 사상의 아카이브가 될 수 없는 통속적 글로만 채워져 있었기에 대학생을 포함한 지식인들은 주간지를 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은 《선데이서울》에서 나타나는 기호를 통해 일상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에 안도하면서 대중문화의 핵심을 만들어냈다. 《선데이서울》을 포함한 주간지는 “온 나라의 주력이었고 주말의 유원지”였다고 일컬어질 만큼 주 단위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도시 생활자들의 삶의 리듬을 더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소비문화 시대의 대표적 매체’로 자리 잡아갔다.⁴⁾ 도시인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일상에 대한 감각’을 재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데이서울》은 이러한 일상에 대한 감각과 대중들의 공감을 확인하는 상징이 표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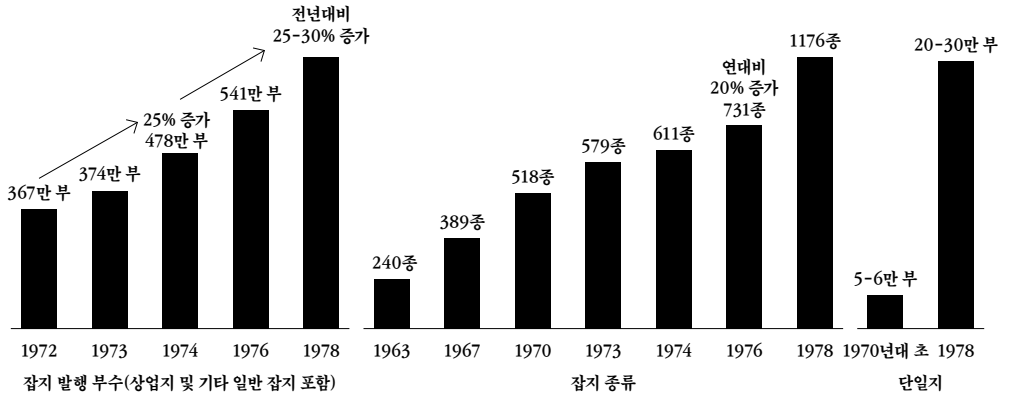
표지는 잡지의 가장 걸장으로 책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첫 부분을 장식하는 상징적 요소로서 대표적 이미지와 문구가 등장하는 곳이다. 표지는 커버(cover)라고도 하며, 잡지의 필수 구성 요소이면서 잡지가 가진 모든 이야기와 장면들을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표지는 대중을 유혹하거나 단번에 시선을 끌어야 하는 잡지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데이서울》의 표지를 분석하여 시대에 따른 대중들의 욕망과 사회문화적 요구와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선데이서울》의 표지는 여성의 얼굴, 특정 여성의 사진

초상을 사용했던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논점이 될 것이다. 표지에 등장한 여성의 얼굴 이미지는 대중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시대적 인물상으로서의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투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1970년대 《선데이서울》의 대중서사 역할

1960-70년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대중매체의 등장과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대중 및 대중문화는 중요한 ‘기표’로서 부상했고, 대중사회를 대상으로 생겨난 대중의 지대한 관심은 전 사회적이었으며, 이전과 달리 대중사회에 대한 관심은 일상생활에 속속들이 파고들었다. 대중매체의 연이은 등장과 이러한 매체들의 상업화, 근대적 산물로서의 확산 및 보급 등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확산 및 보급을 통해 정책 홍보의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유행의 수용성을 증진하게 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 수 있다. 산업화의 강력한 기세 속에 우리 사회에 도시 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들은 노동시간 이후에 짧게나마 여가 및 휴식 시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의 여가 및 휴식 시간에 긴밀히 관여한 매체로서 TV 프로그램의 공급은 매체 발달의 주요한 기반을 이루었다. 이러한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들은 길거리 가판대에 흥미 위주의 값싼 주간지, 월간지를 발행해 올림으로써 새로운 대중매체의 발달을 견인했다. 이는 당대 대중의 삶에 있어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⁵⁾ TV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는 도시 근로자들이 여가 및 휴식 시간을 적정히 보내는 데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 산업화 정책의 효과가



[그림 1] 단행본 『韓國의 大衆文化』 내용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국가 전반에 걸쳐 가시적으로 창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으로서 사회 분화 및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었다. TV 보급률의 확대와 주간지 붐 등에 의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소득 수준의 증대로 인한 대중의 소비 욕구가 활성화되었다. 연이은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그간의 산업화 기반을 토대로 과거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고도성장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1970년부터 1979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0.47%에 달했다. 총 수출액은 1965년에 1억 7,5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79년에 이르러서는 150억 5,500만 달러의 규모에 도달할 만큼 급성장하여 국가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이 여실히 효과를 드러냈다.⁶⁾

경제 성장의 기세는 잡지 발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잡지 발행부수도 1960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도에 그 증가폭은 더욱 가속화⁷⁾ 되었다. 잡지의 종류도 1963년 240종에 불과했지만, 1967년 389종, 1973년 579종, 1978년도는 총 1,176종에 달했다. 또한 종합지나 대중지, 여성지, 문화예술지의 경우에는 단일지로서 발행부수가 5-6만 부 선에서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78년도에는 20만-30만

부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는 현상을 나타냈다.⁸⁾ [그림 1]

《선데이서울》이 초반에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던 주된 이유는 TV보다 라디오 또는 영화가 주된 오락 수단을 이루고 있었을

- 4) 이진선, 「대중매체에 표상된 베트남전쟁과 젠더 이데올로기 -1964-1973년 『선데이서울』, 『여원』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2017, pp.36-37
- 5) 박혜원, 「통속 주간지 『선데이 서울』 화보와 기사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와 패션 1968년 창간호부터 1971년 168호까지」, 『패션비즈니스』, 제23권 5호, 2019, pp.33-34
- 6) 허은,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70년대』, (창비, 2016), pp.143-147
- 7) 상업지나 기타 일반잡지를 모두 포함한 잡지의 총 발행부수는 1972년도에 367만 부, 1973년도에는 374만 부였으나, 그 이듬해인 1974년도에는 478만 부로 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잡지 총 발행부수는 1976년도 541만 부였고, 1978년도에는 연간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25~30%까지 증가했다.
- 8) 강현두, 『韓國의 大衆文化』, (나남, 1987), p.70



[그림 2] (왼쪽부터) ① 1969.5.18. 제34호-소장용, CAL(중화항공공사) 사무직, 서라벌 예대 공예과 졸업, '반도' 호텔 오피스에서 일함, 47년생(22살), ② 1969.12.14. 제64호-소장용, 경북도청 도시사 비서실, 경북여고 졸업 후 바로 도청에 취직, 1948년생(23살), ③ 1970.5.17. 제85호-소장용, 23살, 대원보일러 경리과, ④ 1969.4.13. 통권29호-e뮤지엄 공공누리, 국회사무처

때 길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었던 대중오락 수단이었다는 점이 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 특히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각종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인구의 급증은 이동 중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를 대상으로 한 대중적 수요를 촉발시켰다.⁹⁾ 1970년대 우리나라는 전국적 규모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기였는데, 이것이 촉발 요인이 되어 대중적 여가(mass leisure) 및 대중적 풍요(mass affluence)가 한국 사회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일상적 생활공간 곳곳에 매스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의 내용적 발산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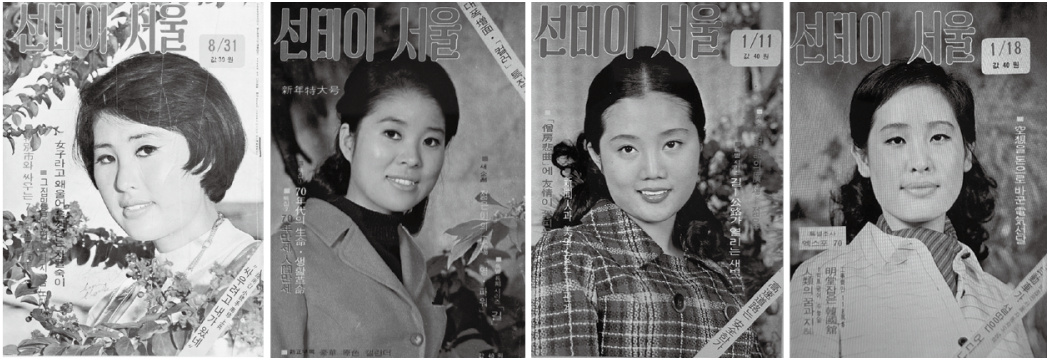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고속도로망이 형성되면서 대중의 생활 영역은 갑작스럽게 확장되었다.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외버스 정류장과 철도역마다 뉴스 가판대에는 대중적 주간지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¹⁰⁾

《선데이서울》의 대중성을 이끈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상성이다. 《선데이서울》 잡지는

다양한 구독자층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 중 일부였다. 두 번째는 오락성이다. 《선데이서울》에서 표출되는 '성'에 관한 서사는 이 잡지가 본격적 성인오락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기존 잡지와 구별되는 색다른 독특한 특색을 여럿 갖추고 있었다. 즉, '선데이서울'은 기존 잡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보는 잡지'라는 측면에서 오락성을 수용하되, 다양한 성격의 르포(reportage) 기사와 생활정보, 인터뷰, 광고, 만화, 영화, 연애·결혼 등을 실었다.¹¹⁾ 세 번째로 상징성이다. 《선데이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 취향을 가진 다양한 독자층들을 끌어모았고, 《선데이서울》이 대중문화를 선도하며 대중의 다양한 얼굴을 표현하고 핵심적 역할을 한 '대중서사물'이었다.

3. 1970년대 《선데이서울》 표지에 나타난 여성의 유형별 표상 분류 및 분석

《선데이서울》 잡지는 대중에게 널리 수용되었던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대중의 문화적 소비의 대상으로서 《선데이서울》은 존재하며, 주간지만의 고유한 매체성을 기반으로 소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그림 3] (왼쪽부터) ① 1969.8.31.통권49호-국립민속박물관, 한국 나일론, ② 1970.1.4. 66제호-과천미술관, 20살, 서울은행 본점 영업부, ③ 1970.1.11.통권 제67호-과천미술관, 농어촌개발공사 ④ 1970.1.18.통권 제68호-과천미술관, 수산개발공사,

잡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선데이서울 내용에는 소설과 르포, 수기, 심층취재 기사 등의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가 존재한다. 이들 문자 텍스트는 주간지의 외형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들로서, 《선데이서울》 표지와 함께 소비에서 핵심적 부분을 맡는다. 물론 《선데이서울》의 선정적 화보들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통속적 흥밋거리인 화보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지금껏 《선데이서울》이라는 기호를 재전유하는 데에는 읽을거리를 소비하는 방식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호출하며, 대중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매체였다.¹²⁾

1970년대 《선데이서울》 표지의 이미지는 표상을 주체화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갖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잡지는 일정 기간 동안 매주 규칙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중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성을 맺고 있는 매체이다. 일상과의 관련성에 기초해 《선데이서울》의 기사 내용 구성 및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양이나 오락 위주의 내용 편성을 통해 가급적 비정치적 성격을 띤다. 두 번째는 표지를 비 시사성의 표지로 한다. 세 번째는 내객 기사의 편집에 있어 가법지만 유익함이

돋보이는 독자들 위주의 사건 실화를 곁해서 신는다. 네 번째는 정치적 내용은 가급적 정책 면으로 편성하는 것은 피하고 ‘정계 야화’ 또는 ‘인물 평’으로 한정을 시킨다.

《선데이서울》의 당시 표지모델의 인터뷰 ‘5분 데이트’ 코너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 특징이 있다. 대부분 20대 초반 나이이며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똑똑하고 신념이 있고 자신을 잘 꾸밀 줄 아는 여성들이 나온다. 표지모델의 이미지를 크게 분류를 해 보면, 미인(美人)형, 신체조건이 좋은 여성, 학벌과 직업이 좋은 지적 여성, 재능이 있는 여성으로

- 9) 박성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의 유형과 표상」, 『한국학연구』 제22집, 2010, p.164
- 10) 강현두, 『韓國의 大衆文化』, (나남, 1987), pp.26-27
- 11) 「『선데이서울』의 창간과 대중 독서물의 재편」, 연운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60p
- 12) 김성환, 「1970년대 <선데이서울>과 대중서사」,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pp.245-246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산업화로 인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총 3가지의 표지 이미지인 직장 여성, 여대생, 연예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데이서울> 표지모델은 '5분 데이트' 코너의 인터뷰 기사 내용으로 인물을 알 수 있다. 이름, 키, 몸무게, 신체 사이즈, 옷 스타일 그리고 가족과 형제, 꿈, 현재 직업, 연애, 결혼 등 자세하게 인터뷰를 한 기사들이 실렸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오는 목소리와 태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1. 직장 여성

<선데이서울>의 표지모델에서 전문직 또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도시적이고(modern) 엘레강스(Elegance)한 모습으로 가장 많이 이미지화된다. 깔끔하고 현대적 '커리어우먼'(Career Woman)의 특징을 가진다. '직장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여성'을 뜻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볼 때 주부나 여대생에 비해서 남성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롭고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 집단을 의미하기도 했다. 표지에서 상정하고 있는 '직장 여성'은 사무직 여성, 즉 화이트칼라인 커리어우먼으로 '비즈니스 걸' 또는 '캐리어 걸'을 불리기도 했다.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고 생활의식이 강하며 패션 감각도 뛰어난 여성상을 표지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점차 직업을 가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 1968년 05월 18일 34호 >

배짱 두둑한 「샐러리맨」이 좋다는 「미스·CAL」 조종애 양
청결감 만끽하는 「코튼·투·피스」 다림 질
천일수록 「디자인」은 「심플」
휘청하도록 큰 키가 1백68.5cm, 쪽 뺨은
미끈한 체격이 36-24-36.5. 몸무게 56kg.

...비행기 타기 싫어 오피스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 서울여상고, 서라벌 예대공예과를 졸업. 47년생. 내일이라도 당장 좋은 사람 만나면 별다른 까다로움 안피우고 결혼하겠단다. 「좋은 사람」의 조건을 물었더니 백지 사표쯤 주머니에 꽂고 다니다가 상사의 그른 짓에 옳은 말 다 할 수 있는 배짱 두둑한 「샐러리맨」이면 좋겠다고 서슴없이 대답한다. 현실과 타협은커녕 좌충우돌로 잠깐 실직하더라도 「함께 벌어서 살면되죠」 대비책까지 세워둔 것 보니 바로 그런 사람에게 활짝 반하고 있는 중인 듯한데 ... 중국음식을 즐겨먹는 4남 1녀 중 둘째 고명딸. 취미는 그 장신에 바로 그런 구구를 했으면 딱 알맞을 운동경기 관람이란다. ...하늘색의 「차이니스·윈·피스」를 입고 반도 「호텔」 CAL 「오피스」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 양을 ...

< 1969년 12월 14일 제64호 >

속삭이듯 하는 목소리의 동양적 미인
<미스·경북도청> 황옥주 양
천해 보이지 않는 표범무늬 「더블·브레스트」에
낮은 「칼러」
눈두덩이 무척 얇으면서 쌍꺼풀이 살짝 진
눈이 제일 먼저 웃는 것이 이 아가씨의 첫
인사다. 속삭이는 듯한 음성마저가 낮고
가늘고 음악적이어서 대번에 누구나 반해
버릴 ... 경북도청 지사 비서실에서 일하는
황옥주양이다.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곧
도청에 취직했다. 얼마 안 되는 동안이지만
빈틈없는 집무 태도가 평가받는 재색 겸비한
미인. 1948년생. ... 그러나 겨우 4공주라는
것. 그중에 맏이다. 하얀 손등이 무척 곱고
손가락은 붓끝 같은데 『수놓고 「레스」 뜨는 게
취미.』 ... 『신랑감예?』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일도 없단다. 우선은 수병풍이며 레스 뜨기
테이블보 등, 살림밀천이나 하나하나 장만할
심산인가보다.

위의 《선데이서울》 잡지 표지 모델 '5분 데이트 코너' '1968년 5월 18일 34호'에서는 '조종애'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여상고과 서라벌 예대공예과를 졸업하여 반도호텔의 CAL 항공사 사무직을 다니고 있다. 본인의 체격과 스타일이 나오며 결혼 상대의 이상형 “백지 사표쫄 주머니에 꿏고 다니다가 상사의 그른 짓에 옳은 말 다할 수 있는 배짱 두둑한 「샬러리맨」”이라고 설명한다. 솔직한 결혼의 가치관과 바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69년 12월 14일 제64호' 인터뷰에서는 경북도청 지사 비서실에서 일하는 「황옥주」가 나온다. 그녀는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바로 경북도청 지사 비서실에서 취직하여 일하고 있고, “얼마 안 되는 동안이지만 빈틈없는 집무 태도가 평가받는 재색 겸비한 미인”으로 평하고 있다. 그녀의 취미는 테이블보의 '레스' 뜨기, 결혼은 살림칠천 장만 전까지 생각 없다는 것을 보면, 지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모습으로 장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데이서울》의 직업을 가진 표지 모델 이미지는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 집단의 여성이며 도시적이고 세련미가 있다. 또한 여성들의 패션과 미적 관심이 더 구체화되고 유행을 따라갔다. “청결감 만끽하는 「코튼·투·피스」 다림질 천일수록 「디자인」은 「심플」, “천해 보이지 않는 표범무늬 「더블·브레스트」에 낮은 「칼러」” 등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 인터뷰의 제목과 내용에서 의상, 소재, 색상, 패턴 전체적 스타일 등 자세히 설명했다.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1970년대 여성은 사회적으로 원하는 이미지의 기대치가 있었고, 외적 이미지를 가꾸는 것에 대해 큰 관심사였다고 알 수 있다.

3.2. 여대생

1970년대의 여대생은 1960년대에 중·고등 입학시험은 과열 경쟁 속에서 치러졌고, 소수의 여학생들 중 더욱 극소수의 학생들만 그 입학시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1970년에는 인구 1만 명당 26명, 즉 0.03%의 극소수 여성들만이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동일한 연령대 여성 100명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여학생 수는 3명에 불과했음을 뜻한다.¹³⁾

〈1969년 05월 11일 제33호〉

구김 없고 꾸밈없이 귀여운 「돌·퀘이스」 「미스·외국어대」 崔仁淑 양 리듬 있는 운동감의 줄무늬 원피스와 조화를 이뤄 어른티내고 구김 없고 꾸밈없는 말 짓, 몸짓이 상대방에 저항을 주지 않을 만큼 적당히 밝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귀속말 삼아 주고받은 일본 말은 호기심을 온통 자극하는 언어였고 또 가로쓰기 세대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말이 일본어인 것 같아 기어이 배우고 싶었다. 지금 일어과 3학년. 요즈음 「노벨」 문학 수상작 「설국」의 까다롭고 간결한 문체와 싸우면서 매료당하고 있다고. …또 다른 자신 있는 특기로는 수영, 「스케이팅」, 「스키」, 「볼링」 다채롭게 즐기는 「스포츠」에 단련된 1백65cm의 균형 잡힌 몸매가 팽팽하다. …2남 4녀 중 막내딸. …

이는 《선데이서울》의 표지모델을 한 여대생들은 혼하지 않고 보기 드문 여성으로서, 여성들에게 있어 꿈이자 롤 모델로 여겨진다.

13) 이수진, 「1970년대 한국 여성지의 패션 광고디자인을 통해 본 여성 표상 연구: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19, p.16

여대생은 부유한 부모, 그리고 성공한 남편이라는 배경 속 인물로 이미지화되어 있어 당대의 시각에서 볼 때 일종의 특수집단이나 다름없었다. 미혼의 여성모델은 소녀들만이 갖고 있을 법한 낭만적 사랑을 대중이 꿈꾸게 만들었다. 위의 '1969년 05월 11일 제33호' 인터뷰에서 잡지 모델을 "구김 없고 꾸밈없이 귀여운 「돌·페이스」와 "구김 없고 꾸밈없는 말 짓, 몸짓이 상대방에 저항을 주지 않을 만큼 적당히 밝다"의 표현함으로써 소녀의 감성과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순수하고 낭만적 사랑과 도시화 및 산업화에서 거인한 핵가족 제도가 산업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사회적 이상으로 여겨지면서 거대한 문화적 코드를 생성해 작동시키고 있었다.¹⁴⁾

3.3. 연예인

1970년대 연예인은 연기자, 여배우, 모델, 가수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당시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부와 소비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이미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선데이서울》 표지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표상과 여배우의 이상화를 통해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남성들에게는 욕망의 계층 표식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TV드라마 또는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데이서울》 표지의 연예인 이미지는 젊은 현모양처, 미인, 매체에 표상으로 드러나는 부의 상징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여성들처럼 연예인들 또한 '시집 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지표였고, 이들의 결혼을 다루는 기사들은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였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결혼관 및 이상형에 대해 곧잘 언급을 해야 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현모양처가 되어 남편의 내조와 자녀의 양육,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인터뷰에서 밝히곤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미지가 표지모델의 상징적 이미지로 구축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당대의 연예인 스타덤은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본인 동시에, 이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¹⁵⁾ 잡지표지에 구현된 이미지는 이와 같이 대중의 호감을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욕망과 소통의



[그림 4] (왼쪽부터) ① 1969.5.11.제33호-소장용, 외국어대학 여대생 3학년, 일본어, ② 1970.9.3.통권 204호-e뮤지엄 공공누리, 서라벌 예대, ③ 1971.8.29.제151호-e뮤지엄 공공누리, 제6회 재일한국학생 하계학교, ④ 1970.3.1.통권 제74호-관천미술관, 대학, ⑤ 1977.2.6.제430호-e뮤지엄 공공누리, 서울대 여대생

창구로서 작동하고 있기도 했다.

4. 결론

‘도시의 산업화’와 ‘대중문화의 소비’로 본 1960-70년대는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대중매체로서 잡지는 TV, 라디오, 영화와 함께 급성장했고, 이 중에서 일간 신문사들이 발간했던 대중잡지는 대중의 형성과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는 《선데이서울》을 비롯한 주간지가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역과 종류장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대중잡지 《선데이서울》 표지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대중의 일상 속 욕망과 감각 그리고 서사를 어떻게 수용하고 소통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근대의 잡지는 계몽이 목적이었던 반면에, 1970년대 대중잡지는 대중들의 개인적 소비와 욕망을 언어와 이미지로 정보화하고 시각화하여 유통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매체였다. 자본주의적 욕망과 도시화로 인한 익명성과 소외감을 공유하게 된 새로운 대중들은 《선데이서울》을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안정된 가정, 혹은 소외감과 익명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소비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의 욕망을 대중 담화로 시각화하고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원하던 ‘초상’을 제시하고 유행시켰던 매체가 대중잡지였다. 이는 남녀 서로의 요구와 욕망을 찾는 것이었고, 건전하게 서로 호감을 얻고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었다. 그리고 잡지표지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이상향을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이는 아이콘으로 다시 표상되었다. 당시 《선데이서울》은 저급한 잡지 또는 ‘엘로우페이퍼’라는 평가와 인식도 있었지만, 대중의 다양한 이야기와 욕망을 표현하고 기록했던 점에서 시대의 대중 아카이브

역할을 했었던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결국 《선데이서울》은 대중문화가 지닌 일상성의 특성과 담화를 통해 대중의 감수성과 취향, 행동 양식이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대중서사물’로 볼 수 있다.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대중담화와 시각성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상을 담은 문화적 표상으로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되고 있다. ㉞

14) 위의 논문, pp.104-113

15) 이호걸, 「70년대 한국 여배우 스타덤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2000, pp.66-72

참고문헌

- 《선데이서울》 표지 이미지 자료
- e뮤지엄(1969.4.13.통권29호, 1970.9.3.통권 204호, 1971.8.29.제151호, 1973.10.14.제261호, 1973.12.16.통권 제270호, 1974.1.27.제275호, 1975.1.5., 1976.4.4.제387호,



- 1976.10.31.제417호,
- 1977.2.6.제430호, 1979.9.9.제12권
- 제36호-통권563호), 과천
- 국립현대미술관(1970.1.4.제66호,
- 1970.1.11.통권 제67호, 1970.1.18.통권
- 제68호, 1970.3.1.통권 제74호,
- 1970.1.18.통권 제68호),
- 국립민속박물관(1969.8.31.통권49호,
- 1977.6.12.제448호)
- 《선데이서울》 잡지 원본 소장용 5권 1차
- 사료
- 1969년 5월 11일 통권 33호, 1969년
- 5월 18일 통권 34호, 1969년 12월

- 14일 통권 64호, 1970년 5월 17일 통권
- 85호, 1975년 3월 23일 통권 334호,
- 《서울신문사》
- 김성환, (2007), 「1970년대
- 〈선데이서울〉과 대중서사, 부산대학교
- 인문학연구소
- 박성아, (2010), 「『선데이 서울』에 나타난
- 여성의 유형과 표상, 『한국학연구』,
- 제22집
- 박혜원, (2019), 「통속 주간지 『선데이
- 서울』 화보와 기사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와
- 패션
- 1968년 창간호부터 1971년 168호까지),



[그림 5]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① 1975.3.23.제334호-소장용, 텔런트, 20살, 방송공사 1기, ② 1980.9.14.제615호-소장용, 22살, KBS TV 텔런트, 드라마 연기, ③ 1973.10.14.제261호 -e뮤지엄 공공누리, 모델, ④ 1975.1.5-e뮤지엄 공공누리, 여배우, ⑤ 1976.4.4.제387호-e뮤지엄 공공누리, 표지모델, ⑥ 1976.10.31.제417호-e뮤지엄 공공누리, 표지 CM모델, ⑦ 1977.6.12.제448호-국립민속박물관, 텔런트, ⑧ 1973.12.16.통권 제270호-e뮤지엄 공공누리, 노래하는 표지, 가수, ⑨ 1974.1.27.제275호-e뮤지엄 공공누리, 노래하는 표지, 가수, ⑩ 1979.9.9.제12권 제36호-통권563호 e뮤지엄 공공누리, 소녀배우 가수

- 『패션비즈니스』, 제23권 5호
- 이수진, (2019), 「1970년대 한국 여성지의 패션 광고디자인을 통해 본 여성 표상연구: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 이진선, (2017) 「대중매체에 표상된 베트남전쟁과 젠더 이데올로기-1964-1973년 『선데이서울』, 『여원』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 이호걸, (2000), 「70년대 한국 여배우 스타덤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 강현두, (1987), 『寒國의 大衆文化』, 남남

- 허은 의 8명, (2016),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70년대』, 창비
- 천정환, (2023), 「제5회 1970년대(2): <선데이서울>과 새로운 일상성」

그림 차례

- [그림 1] 단행본 『韓國의 大衆文化』 내용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 [그림 2] 《선데이서울》 표지
- [그림 3] 《선데이서울》 표지
- [그림 4] 《선데이서울》 표지
- [그림 5] 《선데이서울》 표지